



한국과 닮아 있는 나라, 폴란드에 빠지다

장혜수

D+185일, D+0일로 시작했던 디데이 계산기가 벌써 세 자리를 콕콕 채웠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생활한 지 꼬박 6개월이 된 것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며 폴란드는 내게 집이 되어줬고 고향이 되어줬다. 13시간 비행 후 처음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이곳이 마냥 낯설기만 했는데 지금 난 폴란드에 빠져 6개월로 예정되어 있던 교환학생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폴란드에 살고 있다.

내가 6개월 더 폴란드에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다. “왜? 폴란드 어디가 좋아서?” 그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한결같다. “그냥, 폴란드의 사계절을 느끼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고작 그런 이유로 낯선 타지에서 6개월이나 더 사는 거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 솔직한 이유다. 폴란드에서 보낸 가을은 내 인생 어떤 가을보다 푸르렀고, 폴란드에서 보낸 겨울은 내 인생 어떤 겨울보다 추웠지만 따뜻했다. 그렇기에 폴란드의 봄과 여름 또한 놓치고 싶지 않았다.

폴란드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묘하게 한국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이다. 폴란드 출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 “혹독한 시련에도 민족의 정통성을 꺾지지 지켜온 한국

역사가 모국 폴란드와 닮았다.” 폴란드는 한국과 비슷하게 이웃 강국들로부터 오랫동안 시달림을 당한 나라이다. 서쪽에 있는 독일은 폴란드 분할과 독소 불가침조약으로 2차례나 폴란드를 지도에서 사라지게 했고 동쪽에 있는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지금



까지 꾸준히 폴란드에 위협이 되고 있다. 강대국이 옆에 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분쟁과 전쟁에 휘말리고 분할과 점령, 학살로 얼룩지게 된 폴란드의 역사에서 난 우리 역사를 보았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친구끼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 폴란드 역사를 알면 알수록 진해지는 감정, 바로 그것이 아닐까.

이런 역사 속에서도 곳곳이 살아남아 지금 한국과 폴란드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데는 두 국

가의 국민들이 가진 힘이 있다.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도시의 90% 가까이 파괴됐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바르샤바를 포기하지 않았고 ‘벽돌 한 장까지’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옛 그림과 사진, 그리고 자신들의 기억을 모아 도시를 재건했다. 그 결과 바르샤바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은(久)와 신(新)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매력적인 도시가 됐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 국민들처럼 폴란드 국민들 또한 자신의 힘으로 ‘바르샤바의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

타지에 살면 한국 음식이 그렇게 그림다고 한다. 하지만 난 폴란드에 있으면서 한식을 많이 찾진 않았다. 신기하게도 폴란드엔 한식과 비슷한 음식이 많아서 입맛에 잘 맞았기 때문이다. ‘수프의 나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수프를 사랑하는 폴란드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수프, 아니 주파(Zupa)가 있다. 난 그중에 플라키(Flaki)라는 곱창 수프를 제일 좋아하는데 한국의 내장국밥과 비슷한 맛이 난다.

폴란드 국민 음식, ‘피에로기(Pierogi)’는 폴란드 전통 만두인데 한국 만두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맛은 조금 다르다. 밀가루 반죽에 으깬 감자, 다진 고기, 치즈, 양파, 양배추 절임 등을 넣고 만들어서 몇 개만 먹어도 든든하니 배가 부른다. 여름에는 딸기, 블루베리, 체리 등 과일로 속을 채운 피에로기를 먹는다는데 얼른 여름이 와서 달콤한 피에로기도 먹어보고 싶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감자전과 똑같은 맛이 나는 폴란드식 감자전 ‘플라츠키(Placki)’와 같이 한식과 비슷한 폴란드 음식이 꽤 있다. 이렇게





폴란드에 살다 보면 여러모로 한국과 닮아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그 덕분인 걸까, 이젠 폴란드에서 고향이 주는 포근함을 느끼곤 한다.

클래식 음악, 특히 쇼팽을 좋아한다면 ‘쇼팽의 나라’ 폴란드와 사랑에 빠지는 건 불가항력에 가깝다. 내가 처음 폴란드와 사랑에 빠졌을 때도 그랬다. 작년 9월, 바르샤바 와지엔키 공원에서 열린 2022년 마지막 쇼팽 콘서트 날이었다. 공원 잔디밭 한 편에 앉아 가만히 피아노 연주를 즐겼던 그날. 따듯한 햇살, 얇게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 주위에 있는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던 그 순간. 그때 난 사랑에 빠졌다. 생각해 보면 폴란드에 빠진 모든 순간에 음악, 특히 쇼팽이 있었다. 쇼팽 벤치에 앉아 흘러나오는 쇼팽 음악을 들으며 샌드위치를 먹었던 가을의 어느 날, 쇼팽 음악원에서 오르간 공연을, 바르샤바 필하모닉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봤던 겨울의 어느 날. 음악과 함께였던 그 모든 평범한 날들이 폴란드를 계속 사랑하게 만들었다.



7736km,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거리. 이렇게 보면 폴란드와 한국은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폴란드 역사를 배우고 폴란드 사람들을 만나고 폴란드 음식을 맛보고 폴란드에서 쇼팽 음악을 들으면서 폴란드를 직접 느끼고 나면 그 네 자리 숫자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단 걸 알게 될 것이다. 분명 폴란드라는 이 가깝고도 먼 나라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